

명품 국민 <후편>

나는 이민오기 전까지 남한산성을 가벼운 마음으로 몇번 놀러 간 기억들이 있다. 하지만 그 수려한 계곡사이로 우리 민초들의 통곡과 피울음이 사무쳐 땀똥고 있음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다. 나의 무지스러움이다.

소설 <남한산성>은 인조 14년 1636년 12월부터 1673년 2월,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두달여 사이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자. 1616년(광해 8년)에 누르하치가 여진의 부족을 합쳐 후금을 세우고 칸의 자리에 오른다. 1618년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위해 신하의 나라인 조선에 파병을 요청하고 후금은 파병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1619년 강홍립이 일만 병력을 이끌고 명을 위해 출병하나, 후금에 투항하고 만다. 1623년에 능양군(인조)이 광해를 폐하고 왕위를 빼앗으니 이것이 인조반정이다. 1624년 이괄이 난을 일으키며 이를 진압하면서 남한산성을 축성하게 된다. 1627년 (인조 5년)에 후금이 삼만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공하니 인조는 강화로 피난을 간다. 이것이 정묘호란이다. 1636년 (인조 14년)에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용골대가 청의 사신으로 조선에 왔으나, 조선은 청의 국서를 거부한다. 이에 청나라는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니 왕과 세자는 남한산성으로, 빈궁과 세자들은 강화로 피난을 간다.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다.”라는 주화론의 최명길과,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기회도 없다.”라는 척화론의 김상헌의 주장은 풍전등화인 국가 운명을 47일간 지연시킨다. 마침내 1637년 (인조 15년)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의 왕에게 세번 절하고 아홉번 무릎을 꿇어 엎드려 신하의 예를 갖춘다. 그 댓가로 세자 일행은 심양으로 끌려가고, 조선의 여자 수만명과 말 수천필과 엄청난 조공품을 바쳐야 했다. 이때부터 청의 국호를 쓰면서 청과 군신관계를 맺는다. 1644년 (인조 22년)에 청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대륙을 지배한다.

김훈씨의 간결하고도 메마른 문체는 이렇게 표현한다. “반드시 죽을 무기를 권 군사들은 반드시 죽을 싸움에 나아가 적의 말발굽 아래서 죽고, 신하는 임금의 몸을 막아 서서 죽고, 임금은 종묘의 위패를 끌어 앉고 죽어도, 들에 살아남은 백성들이 농장기를 들고 일어서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인 적을 베고, 아들은 누이를 간음한 적들을 찢어서 마침내 사직을 회복하리라는 말은 크고 높았다.” 청나라가 두려웠던 것은 조선의 백성들이다. 조선 민초들의 전투력은 싸움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지만 백성들의 생존본능은 무서울 정도로 처절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 소설을 이렇게 말한다. “그해 겨울, 갈 수 없는 길과 가야 할 길은 포개져 있었다.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옛터가 먼 병자년의 겨울을 흔들어 깨워, 나는 세계악에 짓밟히는 내 약소한 조국의 운명 앞에 무참하였다. 그 갇힌 성안에서는 삶과 죽음, 절망과 희망이 한덩어리로 엉켜 있었고, 치욕과 자존은 다르지 않았다.”

또 권비영의 장편소설 <덕혜옹주>를 보자. 나의 무지는 조선에 이런 이름의 옹주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한국은 숨겨진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 무엇이 그렇게 창피하고 못난 일들이 많았는지 우리의 역사는 걸만 포장되어 감추기 급급하다. 그러니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후손들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또 부끄러운지조차 모르는 것인가. <덕혜옹주>는 1912년 5월 25일 고종의 막내딸로 덕수궁에서 출생한다. 1910년 일본의 식민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다. 1925년 13세의 나이에 일본 학습원으로 볼모로 강제 연행된다. 1929년 어머니 양귀인이 사망하고 1931년 일본 대마도 백작과 강제로 정략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의 외동딸은 두나라 사이의 정체성 혼란으로 자살하게 되고 그녀는 정신병동에 감금된채 일본과 조국 모두에게서 외면을 당한다. 1962년 김을환이라는 신문기자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에 귀환을 하지만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고 외로이 죽음을 맞이한다. 심지어 아버지 고종의 죽음도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일본은 발표하지만, 그의 시신은 흑자색으로 변해 있었고 수랏간 궁녀 두명이 행방불명 된다.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소문만 무성한 채 고종의 장례조차 일본식으로 치루어야 했다. 이를 계기로 삼일운동이 일어난다. 비단 덕혜옹주 뿐인가. 순종과 의친왕, 영친왕, 조선의 왕손들 모두가 조국의 버림을 받고 죽어가야 했다. 그녀는 말한다. “모든 일이 봄날의 꿈처럼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흔적없이 사라지는구나. 모든 것은 사라짐으로써 덧없나니.. 나의 마지막 소망은 오로지 자유롭고 싶었을 뿐이었느니라..” 조선의 마지막 황녀로 태어났지만 한번도 황녀로 살지 못했던 여인, 누구보다 귀한 존재였지만 모두가 외면했던 그 여인은 ‘조국에 있던 순간에도 조국이 그리웠다’고 한탄하며 영원한 자유를 위해 먼길을 떠났다.

5천년의 세월동안 버림받은 한민족의 아픔이 비단 이것뿐이겠는가. 죄없는 백성들이 눈물로 만들어 온 조국이다. 어찌 박해받고 버림받은 민족이라면 유대민족만 할까. 하지만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라는 역사 소명의식이다. 그런데 한국은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하고 대학 입시과목에서 빼자는 발상을 하니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려는 것인가. 내 자신을 가문도 없고 전통도 없고 사상도 없는 헛꺽데기로 치부하고 <명품 민족>임을 자포자기 하는 것인가. 자본주의의 사생아가 되어 과거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외형만에만 허영과 <명품>으로 눈속임 하겠다는 것인가. 집안의 어른들과 국가의 어른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인가. 민족의 선구자들과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하는도다.